

# 광주시 안전신고 상시점검 시스템 강화

## 시민안전실장 단장

## 3개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자치구·안전전문가 참여

광주시가 잇따르고 있는 도심 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신고 상시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향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자치구·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개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1반(반장 광주시 안전정책관), 점검 2반(광주시 자연재난과장), 점검 3반(광주시 사회재난과장)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점검반은 ▲교통, 생활·경제, 기타분야 ▲시설·

건축, 보건·복지 분야 ▲도로, 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안전민원을 세분화해 신속 대응·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혁신소통기획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민 민원을 우선 선별하고, 각 점검반별로 토목, 건축, 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인력 풀(Pool)을 활용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민간전문가는 119토목구조대(16명), 안전관리자문단(20명), 지방건설심의위원회(250명)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모니터봉사단(3500여 명), 자율방재단(1900여 명) 등 민간안전단체들도 힘을 보탠다.

점검은 소관부서 점검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현장 건축, 토목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재점검 및 보완 ▲교통민원 발생지역, 교통시설 미설치 등 개선 ▲우기, 혹서기 등

시기별 안전위험요소 점검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재난취약시설 및 사각지대 시설점검 등도 병행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4일부터 27일까지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상황실에 시민 긴급 안전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사례, 각종 현장 위험요인과 보도블럭 파손, 중앙분리봉 훼손에 따른 보행 및 교통위험요인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2811건을 접수받은 뒤 모두 처리했다.

박향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현장 점검이 필요한 민원을 타 업무보다 우선하고, 사·자치구·민간 안전전문가와 함께 안전사항을 점검처리하겠다"면서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정책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서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열려

### ‘파크웨이브’ 대상·‘알리오’ 최우수상 시, 10개팀에 5억원 상당 지원

광주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창업 아이디어 우수성을 겨루는 경진대회에서 ‘파크웨이브’가 대상을 받았다. <사진>

지난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AI 창업 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6월 4일 예선을 통해 28개 팀이 선정됐으며, 같은달 28일부터 3일간 본선을 통해 17개 팀을 가리고 15일부터 이틀간 결선 발표심사를 진행해 선발된 최종 10개 팀이 최종 실력을 겨뤘다.

이날 결선에 참가한 팀들은 인공지능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수요기업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역량 및 아이템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창업과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기타 분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한 뒤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예비창업팀 ‘파크웨이브’는 폐쇄회로(CV)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주차공간 관리 솔루션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최우수상을 수상한 ‘알리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추천 서비스를, ‘크레이지알파카’는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추천 서비스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크레이지알파카는 초기 기술형 스타트업 투자사인 에원파트너스와 2억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5억원 상당 인공지능 시제품, 서비스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더 많은 인공지능 분야 우수 예비 창업자들이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모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리콜 김치냉장고 무상 수리받으세요

### 광주시 화재사고 예방 뚜껑형 부품교체 운동

광주시가 노후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담체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냉장고로, 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1356건으로 매년 300여 건이 발생했다. 상당수가 ㈜위니아담체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김치냉장고로, 해당 회사에 선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블로그·사회관계망(SNS),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활용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김치냉장고를 무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제품의 노후 부품 무상 교체 신청은 ㈜위니아담체 홈페이지(www.winiadimchae.com) 또는 고객센터(1588-9588)에 접수하면 된다.

정영화 광주시 민생경제과장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신속히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특히 주변 어르신 등 정보 취약세대에 관심을 갖고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름철 정전 대비 승강기 인명구조 훈련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여름철(6~9월) 정전 등에 따른 승강기 구조 건수는 2018년 780건, 2019년 419건, 2020년 328건에 이른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대규모 정전(Black Out) 발생에 대비해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여름철(6~9월) 정전 등에 따른 승강기 구조 건수는 2018년 780건, 2019년 419건, 2020년 328건에 이른다.

## 광주김치타운, 온라인 여름김치 한마당 개최

### 30일~8월1일, 집에서 김치 체험

광주김치타운은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시민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여름김치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집에서 김치 담그는 날’을 슬로건으로, 실시간 줌을 통해 김치명인이 만든 밀키트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담그는 온라인 체험 행사다. 김치 밀키트는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

옥심 명인이 만든 조리법을 담아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를 소분해 포장한 총 2종(열무김치 1kg, 오이소박이 1kg)으로 구성됐다.

실시간 줌 강의는 3일간 매일 2회 김치타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며, 김치명인의 김치담그기 방법을 온라인으로 전수한다.

참가자는 광주김치타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소화천사의집에 녹색 나눔숲 조성

###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 복지시설 치유의 공간 제공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남구 봉선동 장애 인복지시설인 소화천사의집에 녹색 나눔숲을 조성·개방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숲 조성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내 부지를 수목 식재 등 녹색공간과 쉼터를 만들어 이용자나 시민에게 심신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소화천사의집과 협약을 체결하고, 1500㎡ 유휴부지에 배롱나무 등 교목 12종 72주와 조팝나무 등 관목 12종 2480주, 꽃무릇 등 초화류 3종 2640본을 식재했다. 또 경사면을 따라 목재계단과 황토콘크리트 포장 산책로, 파고라 쉼터 2곳도 조성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경사면 산책로를 따라 쉼터를 배치했

으며,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해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자금 총 34억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 33곳에 나눔숲을 조성해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녹색자금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나눔숲 조성으로 시설이용자 및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과 시민 모두가 치유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